

# 무안군, 생산비 절감·고품질 양파생산 교육 '호응'

## 영광군, 농업인 미디어 촬영 편집 기초교육 수강생 모집

### 양파 기계정식 위한 육묘 기술·주요 병해충 예방교육 실시 인건비 상승 대비 고품질 생산 위해 200ha기계 정식 목표

무안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양파 재배 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양파 기계육묘 기술 및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파 품종개발·재배, 기계육묘 재배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고 강의에서는 양파 전 과정 기계화의 첫 단계인 양파 기계육묘 재배기술과 농가 사례발표를 통해 기계화의 중요성과 건전한 묘 생산을 강조했다.

또한 노균병, 잎마름병 등 양파 생육기·저장중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생태와 저장병 발생 예방요령 교육으로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농촌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 올해 200ha의 양파 기계정식을 목표로 관련 사업 추진과 재배기술 지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파 기계화에 있어 육묘는 농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육묘 실패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양파 뿐만 아니라 마늘 기계화를 위한 교육, 시연회 등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은 전국 재배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양파 최대 주산지로서 양파 재배면적은 총 2,037ha에 이른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은 관내 영상 제작·편집에 관심 있는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인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기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정보화교육장 및 만곡 미디어 제작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번기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상촬영 기획 및 실습,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영상편집 이론 및 실습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만곡 미디어 제작소를 적극 활용하여 영광농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 도움이 되어,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현재 농업관련 콘텐츠를 운영 중 또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영광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8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350-4833)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함평중 문규리 학생, 2022 광주시미술대전서 일반부 특선 영예

### 공예 부문 '심장이 뛰다, 38.5'... "취미로 시작한 도예, 함평 빛내는 작가로 성장할 것"



함평군 도예 분야 '숨은 인재'인 문규리(함평중 3·함평읍 거주)양이 올해 제35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에서 일반부 특선을 받아 주



목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일반부에 출품해 거둔 쾌거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함평군은 9일 "함평중 3학년 문규리 양이 광주미술협회가 주최하는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작품 '심장이 뛰다, 38.5'로 공예 부문 일반부 특선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는 한국화, 민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서예(한문·한글), 미디어아트, 사진, 판화, 문인화, 디자인, 캘리그라피, 서각 등 15개 부문에 1천739점이 출품됐다. 이 중

대상 4점, 최우수상 21점, 특선 267점, 입선 683점 등 총 975점이 입선작에 선정됐다.

문 양은 일반부에 출품해 성인 작가들과 자웅을 겨뤄 특선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 양의 출품작은 '심장'을 형상화한 도예 작품 '심장이 뛰다, 38.5'다.

문 양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점점 더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을 떠올리며, 동물도 인간처럼 대우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문 양은 앞서 (제)전남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0년 숨은인재 발굴대회'에서 예체능 리더(입체조형) 부문에 입상, 올해까지 총 900만원의 재능개발 장학금을 받는 등 지

역 인재로 알려졌다. 또한 2021 제10회 남원 국제도예캠프 물레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도예 분야 인재로 인정받고 있다.

문 양은 "어린시절부터 만들기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자기를 취미로 접했는데, 이제는 어엿한 도자기 작가로 성장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됐다"며 "내년에는 경기도 이전에 도자기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함평을 빛내는 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미술대전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시상식과 같은 장소에서 이날부터 9월 5일까지 전시된다.

함평=김광훈 기자

## 전남 빵지순례에 신안 임자 대파 넣은 '대파테라' 선정



전남도가 지역 농수특산물로 만든 개성만점의 빵을 모아 만든 빵지순례에 신안의 '대파테라'가 선정됐다.

대파테라는 임자 대파를 넣어 은은한 파향이 나는 부드러운 야채 캐스터라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할매니얼(할머니+말레니얼) 디저트 제격이다. 박종운 임자농협 하나로베이커 대표는 "대파테라가 전남 빵지순례에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대파테라 뿐만 아니라 신안 특산물인 임자 대파를 이용한 다양한 빵을 개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대파테라를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관내 제빵업체에 기술이전과 공동포장재를 보급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안에서 먹을 수 있는 특화빵 개발에 노력중이다"면서 "원재료가 풍부한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빵 개발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 기자

## 영암군,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 청소년 氣 살리기 상담 도구 '푸드아트명상 키트' 개발 및 제작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마음정원과의 청소년 氣(기)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군 쌀과 콩 등의 농산물을 이용한 '푸드아트명상 키트' 개발과 제작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양 기관의 연대를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푸드아트명상 키트는 나의 이름은 브랜드, 나의 반려트리, 성장 만다라 등 나에게 집중하는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핀셋을 이용하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내가 나를 돌보고(푸드아트 테라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명상) 심리상담 도구이다.

㈜마음정원 정희경 대표는 "우리 농산물을 단순히 먹거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같이 살리는 도구로서 청소년

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키트를 통해 경험하는 자기통제와 자기 돌봄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상담 도구가 우리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동, 노인, 가족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심리상담, 부모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관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061)470-1004 및 청소년전화 1388로 연락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